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오후 예배는 제4남, 5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2. 오늘 오후예배 찬양은 제4남, 5여전도회 찬양대입니다.(연습 2시, 소망관)
3. 충청연합여전도회 수련회 개최 안내 ① 일시:2014. 8.18~19일(1박2일)
② 장소:고려신학대학원 ③ 강사:정주채 목사 ④ 회비:15,000원
⑤ 18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참석하시고자 하는 여전도회 회원
께서는 8시 5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대전신일교회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풍성한 바자회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생필품, 의류, 가전제품 등의 헌물을 부탁드립니다.
①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②장소 : 대전신일교회

※교역자 동정

- 휴가 : ① 최사무엘 목사 8월18일~23일 ②김금분 전도사 8월18일~23일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곽은태,임성우,강일창,윤석운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 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6여전도회	남9,10목장	제7여전도회	쉽니다	쉽니다	쉽니다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8월 행사

- 3일 : 정기제직회, 신일비전헌신예배
- 4~5일 : 한마음 전교인 수련회
- 10일 : 각 기관 월례회
- 14~15일 : 당회원 수련회
- 17일 : 제4남, 5여전도회 헌신예배
- 27일 : 정기당회

◆ 8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8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역, 이진석, 곽복남,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72장
새286장(구218장)
주님 다시 오실때까지

기 도 1부/원웅국 장로
2부/김명권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누가복음 18:9~14 (신 P126)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우리는.....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260장(구194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양문주 장로
2부 / 강일창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제4남·5여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인도 정 인 택 회장
설교 최사무엘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정혜민 회장

성경말씀 인도자

룻기 1:1~5 (구 P402)

찬 양 제4남·5여전도회

말씀선포 설교자

회개 그리고 회복

찬 양 ... 새540장(구219장) ... 다같이

헌금기도 소재역 회계

광 고 인도자

축 도 설교자

✚ 다음주 기도/ 육공일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534장(구324장) ... 다같이

기 도 김선영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누가복음 2:41~51(신 P91)

말씀선포 설교자

예수님을 잃지 맙시다

목장찬양 남 9, 10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실버 목장

✚ 다음주 기도 / 정은주 집사

Since. 1978

No 33. 2014. 8. 17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웅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제,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텟넷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3. 학원선교 :** 대전총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4.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춘자, 강혜성(김성원), 김재희, 김종경, 노시래(구남량), 박근용(최윤자), 박남수, 박순국(조수정), 박유연, 박진우(김혜정), 윤선옥(염순자), 이선환, 이승호(성월용), 이윤희(최길자), 장재화(김덕연), 조남년, 황돈수(곽정자), 무영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경진형(이정자), 곽복남,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재홍(한영자), 김종남, 김진온(김남주), 김희경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유연, 박은정, 박해진, 성형건(윤송희), 소재익(김미화), 안재경(정순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원용국(김복금), 윤성욱(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장재화(김덕연), 전금남, 정기훈(최연옥), 정옥근(이경미), 정재안, 조남년, 최미애,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한영실, 황돈수(곽정자), 무영

✦ 선교헌금

강일창(고숙자), 김명권(정영주), 김영필(심남희), 김재희, 노시래(구남량), 박영숙A, 박해진, 서기원(김진숙), 윤호식(주정주), 이은하, 이진석(윤혜진), 정옥근(이경미), 조남년, 채재규, 최영준(한은정)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 남동군(윤현덕), 남용민, 안스디자인, 안영원(영인, 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염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라희), 장은숙(안소연, 진형, 진성), 정옥근(이경미), 무영

✦ 비전헌금

노시래(구남량), 서기원(김진숙), 윤성욱(김신혜), 정옥근(이경미), 조남년, 채재규, 무영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목장현황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03초원	5 김채욱					
	2 강일창							6 고숙자					
남2초원	3 박근용						04초원	7 곽복남					
	4 김명권							8 성영욱					
남3초원	5 남동군						05초원	9 구남량					
	6 안재경							10 정혜민					
남4초원	7 오승엽						06초원	11 황현숙					
	8 박순국							12 김복금					
남5초원	9 조성철						07초원	13 정옥자					
	10 이인호							14 이경미					
여2초원(실버)	1 김영자						08초원	15 신윤경					
	2 김명숙							16 김춘복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09초원	17 한은정					
	4 정채순							18 서남지					

금주의 말씀

우리는...

누가복음18:9~14

저는 오늘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성경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 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이는 은혜만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1.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11~12절을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려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중 한 부류였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פריש"에서 왔습니다. 이말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규약에 나오는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막지 말라는 것은 막지 않고 성경에서 부정한 것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리와 같이 없다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남의 것 욕심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불의한 행동은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자신들을 PR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간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바리새인의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은 옳은데 생각한대로 못사는 것입니다. 행동이 생각을 못따라가 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남이 아는 나와 다르고, 남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가슴 아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좌절감도 안 느끼고 이중적으로 삽니다.

2. 우리는 세리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또한 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가장 경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행위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은 괜찮은데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기 행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 했고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려면 세리는 속까지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행위의 죄인이려면 세리는 존재의 죄인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히는 돌을 던져 하늘을 꾸러려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겠느니라." 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까? 속까지 새빨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삶에서 발견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51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자기의 행위를 회개합니다. 시편51절에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자신이 처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와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부터 어머니는 죄인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인이며 존재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입니다.

3.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말씀을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음을 내세웠습니다. 자기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십일조를 드린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고, 자기는 양심대로 살았다고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죄와 싸워 몇 번 이겼고, 그는 죄와 싸워 이긴 자기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는, 내가, 나는" 그는 죄와 싸워 이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죄와 싸운다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아예 죄를 짓고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분명히 세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덮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거 얼마나가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말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누구를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공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성공한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도 잘한 자기를 바라보면 믿음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